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성과보고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정책적 과제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와 독점(獨占)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



☎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혁신법제팀 부연구위원
✉ 1jun@klri.re.kr

I. 행사 개최 배경 및 논의 주제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9월 24일을 시작으로 10월 6일과 10월 8일 및 10월 12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자리로 지난해 이미 「혁신성장과 규제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연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로는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과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방안 마련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와 같이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각 회차별로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정책적 과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와 독점(獨占)”,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열띤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II. 회차별 주요 논의 내용

먼저, 9월 24일에 개최된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였다. 이날 첫 발제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타이틀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조망하였다. 이 날의 마지막 발표에서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광덕훈 부회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발제자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장게서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서 10월 6일 개최된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채적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의 첫 번째 발표는 개인금융서비스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의 이정운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와 타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법적 제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SKT텔레콤 AIX 센터의 김정선 부장은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범기관의 입장에서 법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법적 명확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10월 8일 세 번째로 개최된 「제6차 규

제혁신법제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와 독점(獨占)”에 대해 다루었다. 첫 발표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끝으로 마지막 행사 일정이었던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10월 12일 열렸다. 이날 첫 발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제목으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 법상의 법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발제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가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향후의 법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III. 주요 시사점

규제 혁신은 혁신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of 장이 되었다고 본다.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후속적인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규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